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회장 김현호입니다.

어느덧 7대 학회운영진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진 등재지의 학회로 이끌기 위해 모든 임원진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발전적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2009년에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지 발간을 3회로 늘렸고, 올해에는 등재지로 올라가는데 필수적인 연 4회 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는 콜로키움을 매월 꾸준히 열면서 학회의 학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학회는 우수한 학회로서 그 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왔고, 학회의 공신력과 권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모든 회원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공지를 올립니다.

2010년 하반기 학술대회와 정기총회 일정에 대해서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12월 4일(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예년과 달리 PISAF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기간에 열리지 않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 일부에서 정확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와 총회는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듯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회 본연의 업무를 학회 독자적인 일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다는 차원에서이고, 둘째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식에 대한 부천시 측의 강력한 지적 때문이며, 셋째로는 정관에 따른 정확한 총회 운영 및 선거를 시행하려는 차원에서입니다.

첫째,

학회가 학회로서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학회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술적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현 운영진에서는 학술대회 개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올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1박2일의 규모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된 점은 작년부턴 하반기 학술대회를 PISAF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12월에 거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학술대회 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느 타 학회에서도 학술대회와 총회를 같이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영에 대해 작년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학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모두 동의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학술대회를 12월에 개최하고 같은 날에 총회를 가지려는 것도 이러한 방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 우리 학회에서는 PISAF 기간에 총회(선거)를 개최해오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PISAF때 오셔서 PISAF도 빛내고 총회와 선거에도 참석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적 운영에 대해 최근에 강력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 6월 선거를 통해 새로운 부천 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신임시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업무조사과정에서 시장인수위원회는 PISAF와 학회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PISAF와 학회의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학회의 핵심임원이었던 분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 어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장인수위원회에서 보내온 지적사항 중 학회와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PISAF가 재정적 측면에서 학회의 존립 기반이 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사업은 독자성을 유지하고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후략

시장과 부천시의회에 그대로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통지에 대해 학회장인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점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우리 학회가 PISAF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장문의 답변서를 인수위원회에 보내면서 학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일부를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단언컨대 현재의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는 PISAF를 학회의 존립기반으로 전혀 삼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전혀 그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학회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학회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후략

부천시의 재정으로 개최되는 PISAF라고 해서 꼭 그들의 의견을 전부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행사 때마다 그런 오해를 받아가며 학회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학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회와 PISAF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학회의 학술대회와 총회를 PISAF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앞서 학회 스스로 먼저 입장과 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PISAF의 국제학술대회는 분명히 학회의 학술대회는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학회사정으로 인해 PISAF 폐막식에 맞춰서 PISAF의 국제학술대회와 총회 및 선거를 개최하다보니 많은 회원 여러분들은 이것이 학회의 학술대회로 오해하시게 된 듯합니다. 부천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나온 지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PISAF 국제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PISAF의 재정으로 열리는 PISAF만의 학술대회일 뿐입니다.

또한 학회와 PISAF는 재정 뿐 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엄밀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단체는 엄연히 법인자체가 다른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학회가 PISAF의 주관단체라고 해서

PISAF의 행사와 학회의 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SICAF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학회가 SICAF를 공동 주관하고 있지만 대학관을 SICAF로부터 학회가 용역을 받아 행하는 것일 뿐이지, SICAF에서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나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회의 총회와 선거를 학술대회와 함께 PISAF 행사기간 중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PISAF의 재정으로 개최되는 PISAF 행사에 왜 학회가 학회의 고유 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는 오해를 부천시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국제교수초대전 또한 학회행사로 보고 역시 지적당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교수초대전에 PISAF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라도 정상으로 바로 잡아보자는 것이 저와 학회이사회의 생각이며 결의입니다.

셋째,

올해는 제8대 회장 선출이 있는 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하면서도 공정한 학회운영을 목표로 지금까지 학회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차기 학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학회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되었던 선거관련 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정확하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듯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 세칙 몇 가지를 이사회를 통해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즉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회원관리 등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본 학회 정관규정에 준하여 진행할 것이며 이는 곧 공식적으로 공표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PISAF가 아닌 시기에 개최하는 정기총회나 회장 선거는 정관에는 절대 위배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관내용은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장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선출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하든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외에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사단법인 단체이므로 임원들의 인적사항 등은 공증절차를 거쳐 법원에 임원명단을 등기해야 법적임기가 시작됩니다. 문광부에 명단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문광부에는 보고만으로 변경됨)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법원에 등기된 회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순차적으로 밀려가면서, 저의 경우 법적 임기가 5월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전 임원진의 법적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고 그때까지 이전 임원들이 미처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등기와 관련된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저를 포함한 제7대 운영진의 임기 만료일은 2010년 12월이 아니고 만 2년이 되는 2011년 4월이 됩니다.

그렇다고 4월까지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차기 임원들의 임기시작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모든 7대 임원들은 차기 학회장

선출 이후 2010년 12월 31일부로 사퇴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 총회와 선거의 운영이 원칙을 벗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PISAF 기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 총회, 선거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많이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에 익숙해진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임원진도 동의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7대 임원진 모두 PISAF는 PISAF대로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해, 학회는 학회대로 그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회를 만들어 보자는 이러한 저와 7대 임원들의 충정으로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10.6.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회장 김현호 드림

PS : 주위 회원님들의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가 바뀐 분들이 계시면 학회문자전용 010-3933-7562로 연락주시면 회원명부 및 메일을 수정해 드릴 것입니다.